

업계뉴스

축산식품 심포지움 성료

지난 25일(금) 오전 10시부터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 회의실에서는 한국축산단체연합회(회장 직무 대리 : 유윤수 전화 (28)2363) 주관으로 대한양계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양돈협회, 美사료푸물협회 美대우협회, 美동물유지협회의 공동 후원 아래 주부클럽 여성저축생활중앙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농수산부 서울시 농협 농촌진흥청 등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맑고기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한 축산식품에 관한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의 종합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축산식품의 소비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축산식품 과동을 막기 위해 선 쇠고기를 맑고기·돼지고기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후사료 위주의 가축사양을 조식동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2. 국민체위향상의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맑고기·돼지고기 이상가는 것이 없다.
3. 생산자단체는 스스로가 우선 생산조절 및 가격 조절에 관심을 갖고 다음 정부보조가 있어야 한다.
4. 축산물은 고기 부위별, 등급별 그리고 100g당 기준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심포지움 내용 본문 참조)



축산단체장 간담회 개최

지난 3월 14일 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축산업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축산단체연합회 주최로 각 축산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수산부에서 윤근환 식산차관, 김강식 축산국장, 이홍구 가공이용과장, 정성준 사료과 겸사제장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유

윤수 축산단체연합회 회장 대리, 대한양계협회 오세정 회장 등 각 단체장 및 임원 19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오픈장은 본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반사업을 소개하고 종계업미등록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강구와, 사료품질에 대한 제고와 품질개선, 동물약품의 품질향상을 요망사항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농수산부 식산차관은 윤근환씨는 사료품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하여 계속 품질제고에 힘쓰겠으며 가축약품품질개선에도 노력하겠으며, 종계등록문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앞으로는 모든 축종에 대해 종축등록을, 시키고 등록가축만을 사양토록 각 협회와 상의하여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축산단체 사회정화를 위한 단합대회 개최

서정재 신의 일환으로 공무원 사회를 정화중에 있는 정부의시책에 호응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정화를 기하기 위한 축산단체 단합대회가 축산단체연합회 주최로 3월 11일(금) 오후 3시부터 신문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축산단체 연합회와 대한양계협회, 를 비롯한 15개 축산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한글학자 韓國株式会社의 유신이념에 대한 강연이 있은 뒤 국민총화와 유신 이념을 토대로 한 사회단체 정화작업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 3개 조항이 전 축산인의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축산기술 협의회 개최

제15차 축산기술협의회가 국립종축장 사천지장에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회장으로 지설하박사(축산시험장장) 부회장으로는 김동근씨(국립종축장 부장) 총무로는 이선흥씨(경기도 종축장장) 간사로는 정선부 박사(축산시험장)를 선출하였다. 회의내용으로는 사천지장 소개, 국산계 교잡시험 중간성적 검토, 토끼사육기술 및 질병대책, 우량다산계 육성보급방안 등이 검토 논의되었다.

이철용씨 소신종계원사료공장 인수, 5월초 시판 예정.

소신종계원 전무로 있던 이철용씨가 그동안 자가공급해 오던 소신종계원사료공장을(대표: 이필용) 새로 인수. 5월초순경부터 시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장위치는 예전과 같으며, 새롭게 사무실을 확장하였고, 보다 질좋은 사료를 양축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직 전무이사는 확실하게 내정이 않되어 있으며, 경리부장에는 유재숙 씨(전 소신종계원 경리부장), 생산부장 겸 업무부장에는 서찬식 씨이다.

한국축산기자회(가칭) 발족

축산 잡지및 신문발간에 종사하는 편집인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자질향상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축산기자회(가칭)를 위한 발기인 대회가 지난 3월 28일 사료협회 회의실에서 각 잡지 신문 편집인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회 한협협력회 개최

한협협력회(회장: 윤경중 전화 96-8696, 95-5277)에서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319-13에 자리한 회의실에서 77년도 제 1회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50여명의 회원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육계가 격파 그전망 계란가격과 그전망, 초생추출하게획, 육계 및 산란계 P.S의 선발요령 등에 대해 강의, 토론했다.

또한 이날 대한양계협회 오세정회장은 항생물질 검출에 대한 일간지상의 재재로 인하여 받는 양계 가들의 타격에 대처하기 위한 그동안의 협회 활동을 설명하고 개인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양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신, 불법, 부조리를 추방하여 명랑한 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에 의거 불량주 생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회장은 5월부터 8월까지 육계에 대한

경제능력 검정을 전용종과 세미별로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인규박사 KBS대담에서 양계식품의 우수성 피력

KBS라디오에서는 3월 15일 주부들의 가장 높은 청취율을 보이고 있는 골든프로인 「가정시간」에서 한인규박사(서울대 농대)와 박현준 어나운서와의 대담으로 엮은 “동물성단백질의 중요성”을 오전 10시 5분부터 30분까지 25분간 방송하였다.

한박사는 이 대담에서 우리나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세계 각국의 동물성단백질 1人 1日 섭취량은 미국 74g 서독 58.65g 일본 36.6g 한국 15.1g으로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황이며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원증 같은 가격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계란이며 그다음이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쇠고기 순으로 계란은 완전식품인 동시에 가장 값싼 단백질 섭취원이다”는 내용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계란의 항생물질 검출에 대해서도 “발표된 논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설령 그 양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먹는 것이 걱정이지 계란을 먹는것이 절대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계란이 “식품의 왕자”라고 극찬하고 도시인은 물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민층에서 많이 섭취 할것을 권장하였다.

동물약품협회 경영강습회 개최

동물약품 업체에 종사하는 실무진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호친목으로 상부상조하는 업계 풍토조성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 3회 경영강습회가 동물약품협회 주최로 3월 18일(금)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업체 판매담당 사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선씨의 판매촉진강좌와 권영우씨의 화법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녹십자(주), 돈콜레라백신 수출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대표: 허청섭 전화 27-7186~8)에서는 조직배양에 의한 돈콜레라백신인 家兔化백신을 개발한이래 4월 중순경에 필리

업계뉴스

핀으로 7.000 \$에 달하는 돈콜레라백신을 처녀수출하게 되었다.

지금껏 필리핀에는 美國과 베시코를 비롯하여 유럽의 몇개국이 백신을 공급 했었다.

동남축산센터 조립식제사 개발

동남축산센터(대표: 윤용구 전화: 64: 4018)에서는 새로이 조립식제사를 개발하여 실용신안특허 제1593호로 출원중인바 이는 계사이동시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생적이고 특히 평당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용도에 따라 간이형, 실용형, 완전형이 있는데 종래의 조립식제사가 땀질을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을 완전 해소했다고 한다.

고양양계인 친선축구대회

회원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회원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지역 양계인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일산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해 이지역 양계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農協家畜改良사업소: 가축개량을 위한 學術人會가 3월 19일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소재 農協人學에서 개최했다.

한국企業牧場協會는 종합축산(月刊誌) 후원으로 3월 19일 상오10시부터 藥工會館 5층에서 축산에 관한 新稅制 및 부기, 경리, 회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업계동정

- 송찬원씨(농수산부 축산과장): 한일농수산 실무자회의에 참석 27일 귀국
- 김홍기씨(대한신약 대표): 17일, 업무 협의후 일본서 귀국
- 지재만씨(대아물산 상무): 3월말 수출협 의차 대만으로 출국

사무실이전

- 지산부화장: 전남 광주시 서구 양산동 209-8 (전화 5-1174)
사무소: 전남 광주시 서구 동운동 424-2 (전화 5-0388)로 이전
- 은성산업주식회사: 서울시 종로 양동 286 대우빌딩 18층 1809, 1810호(전화 24) 3821~3825)

개업

- 신약원: 이동춘씨(서울약품)는 안양시 안양1동 640 (안양역앞)에 가축약품 취급처(전화: 안양6007)를 개업

업계인사

- 대한사료 / 김정식씨 대표이사로 취임
- 특수사료 / 이종희씨 부사장으로 취임
- 양복광업 개발물산 / 백연수씨 영업상무로 이용인씨 영업차장으로
- 부산지역사료품질관리 기술자회 / 이병달씨(삼진사료 상무)를 회장 김창호씨(한성사료 기획과장)을 총무로 선출
- 제일제당 / 정주현씨 대표이사로 취임
- 동양사료 / 김용목씨 대표이사로 취임
- 제일종축농장 / 박민철씨가 대표로
- 건국대학 / 고태승씨(축산시험장) 축산대사료학과 교수로
- 농협중앙회 / ▽ 기획실장 金在珏 ▽ 총무부장 이해영 ▽ 관리부장 김창수 ▽ 검사부장 안기택 ▽ 외국부장 趙東厚 ▽ 생활물자사업소장 박종남 ▽ 신용보증부장 金容涉 ▽ 서울공판장장 하문연 ▽ 부산공판장장 고태옥 ▽ 축산물공판장장 한기환 ▽ 축산원예부장 노재섭 ▽ 서울시농협상무 오재근 ▽ 김태호 ▽ 金且完 ▽ 부산시 농협전무 하영구 ▽ 강원도지부장 김은배 ▽ 충북지부장직무 대리 申贊均 ▽ 전북지부장 박찬열 ▽ 전남지부장 이상목 ▽ 경북지부장 박대규 ▽ 이용운송국장 심준섭
- 삼일농장 / 문준택씨 총무부장으로 전종백(산림대 수의학과)씨 제1농장으로
- 동산가축약품(의정부) / 임치환(산림대 수의과)
- 종합축산(월간지) / 유철식(건대 낙농과)취재부
- 미원사료 / 한상섭
- 대성미생물 / 김종영(건국대졸)
- 동남축산센터 / 권혁종(광운 전자공대) 공장장
- 한두교역 / 조성식(중앙개발) 기술부
- 우영목장 / 윤덕영(밀양 양돈장)
- 한국바이엘 / 최중대(산림대 수의학과) 영업부
김병기(서울대 수의학과) 개발부